

# “찾고 답하니 지식 쌓여요”

## 대구 파라미타 문화재 모니터링

“이렇게 비석처럼 우뚝 서 있는 이 돌은 뭘까? 여기 난간이 부러져 있네. 사람들이 왜 여기는 그냥 지나칠까?”

4월 4일 오전 10시, 팔공산 동화사 설법전 앞마당에 파란 조끼의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회원 130여명은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의문들로 넘쳐났다.

대구광역시와 주최하고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하는 대구 역사 순례를 통한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에 참가한 파라미타 회원들의 이러한 의문은 이날 하루 동안의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으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어서 회원들의 움직임은 활기차고 분주하다.



파라미타 대구지부 회원들이 동화사를 찾아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에는 능인중학교, 능인고등학교를 비롯한 8개 학교 파라미타 학생들이 동참했고, 파라미타 대구지부 부지부장 신연섭 선생, 이수열 사무국장 등 10여명의 선생님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모니터링 활동을 도왔다.

“집에서는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사찰예절과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지침이 전달되고 조가 표시된 이름표가 나눠지자 학생들은 조별로 눈을 반짝이며

### 능인 중·고 등 8개 학교 동참 4인 1조, 의문 답 보고서 작성 역사 순례기 자료집 만들 계획

문화재를 찾아 흠여졌다. 일반적인 해설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모니터링은 대구시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4인 1조가 되어 의문과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그 결과보고서까지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 설명과 주변 환경 스케치, 문화재 현황, 모니터링 내용, 답사 후기를 작성 제

출하기까지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기록하며 문화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터득하게 된다.

총 4회에 걸쳐 시도되는 모니터링 활동은 동화사를 기점으로 6월 13일은 대구 동구지역을, 5월 16일과 7월 17일은 동구를 제외한 대구시 전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한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 활동에는 전문 문화재 지도교사가 전문문의 장구를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활동 참가 학생에게는 봉사활동증과 현장체험학습 참가증이 발급된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을 통한 청소년들의 역사 순례기는 자료집으로 엮여지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7월 말경 일괄 시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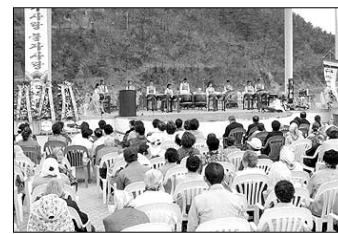
파라미타 대구지부 부지부장 신연섭 선생은 “문화재 모니터링을 문화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교문화재를 접하면서 불교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2002년 실시된 역사문화탐방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이수열(달성고교)은 “전에 선생님들의 설명만 들어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길을 찾고 숨겨진 것들을 찾아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팔공산=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해동종 경남종무원장 취임

### 독거노인 초청 위문행사 다채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종정 해봉)은 4월 3일 밀양시 영남루 앞 고수부지 야외공연장에서 경남 종무원장 취임법회(사진)를 봉행했다. 해동종 종정 해봉 스님, 종무원장 송산스님(용인 대원사 주지)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

서 새로 취임한 경남 종무원장 지수 스님(밀양 용공사 주지)은 취임사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을 근본으로 밀양을 불국토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종정 해봉 스님은 법어에서 “종도 모두가 스스로 부처님이 되겠다는 신심을 발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또한 이날 법회는 밀양 시내 독거노인 200여 명을 초청, 밀양 마리별 아리랑 국악예술단의 축하공연과 밀양불교합창단의 음성공양 등 다양한 위문행사를 열어 의미를 더했다. 친미희 기자

## “사람과 도시를 밝혀 봅시다”

### 대구 전통등 감습회

“아름다운 전통등으로 내 마음도 밝히고, 대구시도, 대구시민들 마음도 밝혀보자.” 대구광역시 봉축위원회는 4월 23-25일, 5월 1-2일까지 5일간 건물 바위 사거리에 있는 진각회관 1층에서 전통등 감습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통등 감습회는 전통등 재원을 통해 지역불교계에 전통등에 대한 의식과 시각변화를 가져와 연등축제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5인1조 1팀을 구성해 약 150Cm 규모의 전통등을 만들게 되며, 참가비는 1개팀 당 1만원, 재료비는 별도다. (053)629-9783 배지선 기자

## “꽃 보고 부처님 뵈니 맘 젊어지네”

### 통도사 자비원 노인 자원봉사자 직원 230명 삼사순례

“예쁜 꽃도 피어있고, 절에 와서 부처님도 뵈고 정말로 좋아.” “한꺼번에 봉사자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함께 오니 더욱 좋네.” 자원봉사자의 손을 잡고 혹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 포항 오사사를 찾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감탄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왔다. 통도사 자비원(원장 오심)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 직원 등 230명의 대가족이 삼사순례를 떠났던 9일,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선 어르신들의 얼굴엔 봄 햇살보다 환한 웃음이 번졌다.

이른 아침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준비 끝에 출발한 이날 삼사순례는 포항 오사사, 경주 기림사를 거쳐 분황사 참배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 외출에서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자원봉사

자들과 1:1대로 짝을 지어 정거음을 더했다.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은 자원봉사자들의 가슴엔 어르신들과 똑같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날 하루만은 어르신과 똑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어디를 가나 한 몸처럼 부축하고 보살피며 움직였다. 봉사자에게 얽혀 발담을 참배한 김보이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외출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절에 와서 부처님도 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통도사자비원이 양로원, 요양원 식구들은 물론 가정봉사를 파견하는 어르신들까지 한꺼번에 나들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평소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펼쳐 왔던 삼성SDI 봉사자, 좋은 만남, 통도사 쿠산티, 호스피스팀 등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오심 스님은 “온 가족이 함께 떠나면 마음이 풍성해질 것 같아 여러 가지 애로점에 불구하고 대가족 나들이를 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매년 함께 하는 여행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부산 농아인불자회 청각 장애인에 성금

부산농아인불자회(회장 이해자)는 4월 18일 불우 청각 장애인 돕기 성금 전달식을 갖는다.

법사 내원암에서 열리는 이번 전달식은 3월 14일 가진 하루차집 수익금을 회향하기 위한 행사로 부산농아인협회, 농아인법회 양산사부, 청각 장애통합 학부모형회 등에서 추천 받은 불우 청각 장애인 10명에게 총 3백 만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하루차집이 성황리에 회향되자 부산농아인불자회는 수화합창단 창단을 계획하고 수화합창단에 동참할 남 여 단원을 모집중이다. 수화합창에 관심이 있으며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며 수화합창단이 꾸러지는 대로 찬불가 연구 및 보급을 위한 공연을 올 가을쯤 연다는 계획이다.

또한 22일에는 부산농아인불자회 지도법사 도원 스님과 청각 장애인 21명, 자원봉사자 1명은 중국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051)508-2014, 011-9940-6455 친미희 기자

## 영세민에 휠체어 전달 (사)부산불교봉사단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지체 장애인 휠체어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산 스님 선사화전이 열렸다.

4월 6-10일 부산시청 2층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사)부산불교봉사단연합회장 최진호씨가 마련했다. 영세 지체 장애인들에게 100대의 휠체어를 보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를 위해 수산 스님은 66점의 작품을 기증했다.

(사)부산불교봉사단연합회 ‘영세 지체장애인 휠체어 100대 전달식’은 17일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열 계획으로 부산시에 휠체어를 받을 장애인 선정을 의뢰했다. 2002년 11월 창립된 (사)부산불교봉사단연합회는 봉사를 위한 법인으로, 창립 이후 장애 인 돕기, 차매도인 돕기, 수재민 돕기 등 26차례에 걸친 봉사행사를 벌여 왔다. 최진호 회장은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여 원만히 회향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하고 “전달식이 열리는 17일에도 관심으로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어 달라”고 말했다. 친미희 기자

## 용호 은빛봉사단 발대식



용호은빛봉사단이 하수처리장 체육공원에 떨어진 오물들을 줌고 있다.

4월 6일 용호복지관(관장 해봉)은 빛 자원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내 자원봉사를 원하는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은빛 자원봉사단은 이날 하수처리장 체육공원에서 정화 활동을 펼쳤다. 참여한 단원은 모두 9명. 60-70대가 대부분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날 은빛봉사단 단원들은 굳어진 허리를 굽혀 휴지를 줌 등 공된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앞으로 거리 정화 활동, 공원 정화 활동, 캠페인 활동 등을 꾸준히 펼치게 되는 용호복지관 은빛봉사단은 자원봉사에 동참할 어르신들 모집

중이다.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에 동참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51)628-6737 친미희 기자

## 대구 선광사 25일 봉불식

대구 동구 선광사주지 예산가 4월 25일 오전 10시 봉불식을 봉행한다. 대구 불교방송사장 성타 스님과 불국사주지 총장 스님이 증명 법사를 맡았다. 이번 선광사 봉불식에는 티베트라마승 쿤산 스님 외 4명이 특별 초청되어 티베트장엄법회를 하고, 2부 행사로는 풍물 한마음잔치와 선광사주지 예산 스님의 달마도 시연이 있다. (053)963-9945 배지선 기자

## 경주 신라문화원 총담재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4월 18일 제16회 총담재를 오전 10시 30분에 안양사에서 개최한다. 총담재는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여 삼화풍 미륵세존께 올린 총담 스님의 차공양을 기리기 위해 1989년부터 매년 경주에서 실시해 온 축제로 차모인 회원들의 육법공양과, 총담스님을 기리는 종사영반예식 차공양으로 진행된다. 배지선 기자



통도사자비원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포항 오사사를 방문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후천을 연 대한민국/실전 자미두수

### ▶ 후천을 연 대한민국

주역으로 풀이한 대한민국 100년사 무국시대(1910~1944) →태극시대(1945~2004) →황극시대(2005~ ) ※ 신국판 384쪽, 16400원. 저자: 권원 윤상철. 노무현대통령 탄핵은 운명인가? 540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초복의 혼란 45년 8월의 광복부터 2004년 8월말까지의 60년은 태극시대에 해당하므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기(1판). 6.25동란은 음과 양이 교류하여 이이를 잉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170-175쪽) 을 8월말까지 막가파식으로 다루어야 나라가 잘된다 (280-282쪽) 9월 2일 신사의 사격경신의 행사가 시작되면, “도저히 이례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걸러지고 통일을 열 庚 舍의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낸다(3판).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水路, 신의주에서 유럽으로 뻗어가는 陸路, 나진에서 북극으로 뻗어가는 精神 路의 삼태극이 이루어지면 人極人壽시대가 열린다(3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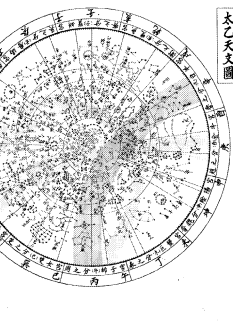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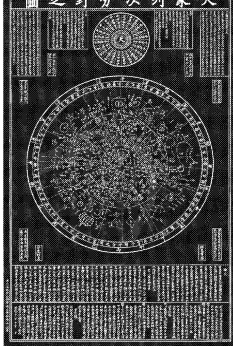
### ▶ 실전 자미두수

※ 변형신국판 700여쪽. 상하 2권, 36,0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2004년 1월 12일 출간 “더 이상의 비법은 없다!”고 자부하며... 자미두수계의 선구자 이두 김선호선생의 13년 풍부한 임상경험의 비법을 아무런 사심없이 공개한 책, 사람의 명반을 놓고 “이때 왜 이 사건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일일이 별들과의 관계를 추론해 나간 책. 이 두 권만 다 소화한다면 누구나 자미두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자미두수 전서 ※ 4×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 (명반 CD포함) 저자: 이두 김선호.



### ▶ 태을천문도(太乙天文圖)

천상열차분야지도(720×1200) 태을천문도(720×670mm) 부록(애설서, 28수를 우리나라에 배당한 지도, 휴대용 동서양 비교천문도) ※120,000원. 저자: 윤상철 2004년 3월 15일 수정판 발행. 고구려시대의 천문도를 조선시대 태조의 명으로 권근이 수정보완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재수정 보완하고, 오운경천(五運經天)의 이론을 덧붙인 「태을천문도」와 설명서. 서예가 김홍규님의 필적과 보관하기 좋게 천에 인쇄하여, 주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 편해매화역수(編解梅花易數)

※ 4×6배판 증보판 20,000원 저자: 김수길윤상철 2004년 3월 20일 증보판 발행. “알기는 소강절”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주역의 대가이자 점의 최고봉이었던 소강절 선생 그 정학의 진수와 대가들의 비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점법에 따른 점치는 방법과 해석을 실전위주로 정리. 기존 편해매화역수에 소강절선생의 절지수, 글자점, 황극책수주수에 대한 내용을 증보하여 소강절 점학에 대한 이해를 넓힌. ▶ 근간안내 심곡비결, 신기묘산, 현웅결미두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대유학당

